# 바르트 "열반도 욕망인가" 법현 "그것은 차원 높은 서원"

**신년특집 종교 간 대화**

**법현 스님 · 바르트 교수**

현재 전 세계는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한 테러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 역시 훼불, 땅밟기 기도 등 일부 광신도들의 행위로 인한 종교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성공회대 채플 교수로 활동해 세간의 화제가 된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교대화위원장)과 독일 루터교 원로 신학자인 한스 마틴 바르트 마르부르그(Marburg)대 명예교수는 구랍 만남을 갖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주로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바르트 교수가 법현 스님에게 질문하고 이를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은 진행됐다.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가진 만남이어서 더 의미가 컸다.

법현 스님과 바르트 교수는 약 4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대담 이후 법현 스님은 바르트 교수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 책자와 〈직지심체요절〉 영역본, 108염주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본지는 신년을 맞아 종교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님과 신학자의 대화를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한스 바르트 교수

> 미래의 부처가 누구며
> 불교도 신비주의 있나
> 윤회 · 열반, 모순 아닌가



한국의 법현 스님과 독일 신학자 한스 바르트 교수가 종교 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담 이후 법현 스님은 한스 바르트 교수에게 108염주와 한국불교를 소개한 영문 책자 등을 선물했다.



법현 스님

> 미륵과 메시아 語原 같아
> 모든 일 인과서 비롯된다
> 열반, 윤회를 끊었다는 뜻

**바르트:** 윤회와 열반은 모순이 아닌가?

**법현:** 윤회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존재하고픈 욕망이 작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태어나 괴롭게 살아가기를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불교의 이론이라고 해서 따라야 할 진리인 것으로 오해한다. 열반(Nirvana)은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실제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모순이 아니냐' 고 묻는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윤회는 불교에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윤회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열반은 윤회를 끊었다는 뜻이다. 티베트의 환생설은 인도불교의 윤회설과 그 의미가 다르다.

**바르트:** 열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는가?

**법현:** 초기불교(테라와다불교)에서는 명상의 주제를 우선 몸(身)과 몸으로 느끼는 느낌(受)을 대상으로 해서 몰입하게 되면 삼매(三昧)를 체험한다. 그 상태에서 마음(心)과 마음으로 인지하는 현상이나 법칙(法)을 살피면 그 속에 흐르는 법칙, 진실을 알게 된다. 즉 아는 지혜를 계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4가지를 살필 것이라는 뜻에서 '4념처(四念處)' 라고 부른다. 경전에 의하면 4념처를 수행하면 반드시 열반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빠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열반이라는 목표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는 뜻에서 '일승도(一乘道, Ekayanamagga)' 라고 부른다. 유식(唯識)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 즉 의식의 흐름을 살펴서 때를 없애면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한다. 정토(淨土)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지닌 덕성을 닮아 실천해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같은 덕성체가 되려는 노력을 정근(精勤)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 여기에 참선의 의식을 결합시켜서 염불하는 이가 누군가를 마음에 새기며 염불하면 참선하는 효과와 같다고 하여 염불선(念佛禪)이라고도 한다. 붓다의 덕성을 그대로 따라서 붓다와 하나가 되는 것을 불수념(佛隨念, Buddhaanussati)이라고 하는데 염불이 바로 그와 같으므로 정통선이라고도 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밀교 또는 금강승이라고 하는 현재 티베트,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일부 하고 있는 진언(眞言, mantra, 呪文)수행이다. 중국불교에서는 인도의 사마타, 삼마디 위빠사나를 수나라 시기 천태지의 스님이 지(止)와 관(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화한 참선이론이 있다. 조동종(曹洞宗)의 묵묵히 살피는 묵조선(默照禪)과 말씀을 주제로 명상하는 간화선(看話禪) 또는 화두참선(話頭參禪)이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쳐서 원 · 명 · 청(元 · 明 · 淸) 시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가장 왕성한 수행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바르트:** 붓다의 가르침은 욕망을 버리라고 한다는데 열반을 얻으려는 목표도 일종의 욕망이라고 생각된다.

**법현:** 당연한 물음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살아있으면,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인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끗하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를 설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바이블에서 말하는 천국이 진짜로 있다면 천국에 태어나려는 희망을 욕망이라고 표현해서야 되겠는가? 또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커다란 자비심을 욕망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더구나 본인이 그런 경지에 이르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방법을 일러줘서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것을 욕망보다 훨씬 차원 높은 '서원(誓願)' 이라고 한다.

**바르트:** 깨달음을 얻었다는 동북아 선사들이 읊은 시를 읽어보면 어떤 것은 교학을 시 형식으로 나타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서정시처럼 자연을 노래한 것도 있다. 그것이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법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느끼셨다. 저도 수행 과정에 있으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깨달음의 시란 그런 것들이다. 이론, 즉 불교교학이나 신학을 깨닫고 나서 그를 표현하는 형식은 논리구조를 설명하거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자연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 아닐까? 불교 전통에서는 절대자의 창조와 섭리를 따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신학이 될 것이며 사실적으로는 보태거나 뺄 것 없는 자연 그대로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다.

**바르트:** 그런 면에서 나는 기독교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신비주의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불교의 신비주의란 어떤 것인가?

**법현:** 합리적 사고라는 것의 어려움과 사람의 부족함을 메우는 듯 한 절대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끌리는 것 같다. 그러나 불교에는 신비주의가 없다. 고타마 싯타르타라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만들어진 것이 불교이다. 부처는 인도 고어로 '붓다(Buddha)' 이고 이 말은 '깨달은 이', '눈 뜬 이' 라는 뜻이다. 이곳에 올 때 길이 많이 막혔는데 원인은 교통사고였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고라고 부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하게 운전하거나 상황이 만들어져서 벌어지는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기적을 생각해보자. 지금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요즈음은 달과의 인력관계 속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일반인들은 신기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알 만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따름이다.

**바르트:** 미래의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는 누구인가?

**법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기 전 수행할 때의 이름을 보살이라고 한다. 깨달음을 보디(Bodhi)라고 하고 태어난 존재(중생)를 사트바(Sattva)라고 한다. 여러 생에 걸친 보디사트바의 과정을 걸친다고 한다. 오랜 세월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그때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한량없는 마음(無量心)' 이라는 것이 있다. 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랑(慈 · metta), 연민(悲 · karuna), 기쁨(喜 · mudita), 평온(捨 · upekkha)' 이다. 그 가운데 사랑이 바로 미래의 부처님 이름이다. 빠알리어 멧따가 산스크리어로는 마이트레야다. 이 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미륵(彌勒)이라고 한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의 '멧따(metta)' 와 메소포타미아의 '메티아(metia)', 팔레스타인의 '메시아(messiah)' 의 어원이 같다고 한다. 즉 사랑의 구세주, 재림주인 메시아와 미래의 부처님의 이름과 뜻이 같다는 말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존재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덕성으로 가진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

**한스 마르틴 바르트 교수는**

1939년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에어랑겐, 하이델베르크, 로마 등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976년 에어랑겐대를 시작으로 1981년 마르부르크대에서 교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2008년부터 한국루터학회 해외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학자로서 창의적 글쓰기에 진력해 왔으며 루터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 종교간 대화 등이 주요 연구 분야다.

**법현 스님은**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봉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덕암 스님을 계사로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을 마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며 불법 홍포의 원력을 세웠다. 현재 열린선원 원장, 성공회대학교 채플강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대수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영암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수산
감찰2국장: 금산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권소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호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신도회사업본부

이창훈, 김생수, 김정한, 권오경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사업부 : 대덕화

■전국신도회

남신도회장: 설주성
여신도회장: 김춘자
수석부회장: 윤근
신도회장단: 김생수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총무계장: 유현석
기획대리: 나윤하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진산, 태산, 덕산, 혜성, 현조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한국교장 : 혜 인 부교장 : 손영진
총 장 : 홍창석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 정 교학처장 : 조영일 국제부교무과장 : 손 정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